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앨범 커버(사진 왼쪽)·트와이스 1집 리패키지 앨범 '베리 & 해피'

K팝 스타들 '겨울 연금' 노린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곡 로열티만 657억원 사이언티·트와이스·태연 등 겨울 시즌송 대열 합류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발표 2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를 누리는 '겨울 시즌송'이다.

12일 소니뮤직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최근 조사에서 1994년에 발표된 이 곡은 현재까지 로열티 수익만 6000만 달러(약 657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Spotify)에서만 총 2억1000만 회 재생됐다. 음악의 포맷이 디지털로 완전히 이동한 시점에서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매년 12월이 되면 주요 음원사이트의 팝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겨울 연금' '잠비 음원' 등의 별칭이 따라 붙고 있다.

매년 겨울마다 음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차트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곡이라는 비유다.

K팝 스타들도 한국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를 꿈 꾸며 겨울 시즌송 발표 대열에 잇따라 가세하고 있다.

매년 봄이면 '봄의 캐럴'로 통하며 울려 퍼지는 밴드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엔딩'의 겨울 버전은 꿈꾼다.

올해 포문은 가수 사이언티가 열었다.

가수 이문세와 함께 지난 4일 발표한 신곡 '눈으로 발표 즉시 음원차트를 휩쓸었다.

아이돌들도 대거 가세했다.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는 11일 발표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베리 & 해피'에 트와이스의 캐럴인 동명 곡을 수록했다.

겨울 느낌을 가득 담은 사운드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져 맞이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노랫말에 담았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 한류 그룹 '엑소', 월드 와이드 그룹 'NCT'의 청소년 연합팀 'NCT 드림' 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들도 잇따라 시즌송을 내놓는다.

우선 태연이 12일 오후 6시 자신의 첫 솔로 겨울 앨범 '디스 크리스마스 윈터 이즈 캐링'의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타이틀 곡 '디스 크리스마스'는 정통 발라드 곡으로, 잊지 못할 만큼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다시 찾아와주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다.

앨범 수록곡 전체가 시즌 콘셉트다.

더 매직 오브 크리스마스 타이핑은 크리스마스 밤 세상이 잠든 고요한 풍경을 묘사한 영어 가사가 겨울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팝 발라드다.

벋 잇 스노우는 스윙 장르의 곡으로 크리스마스의 들뜬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캔디 케인'은 연말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트로 팝 R&B 원태연 시인이 작사에 참여한 '벋(Shhh)'은 산타클로스가 숨겨둔 선물을 찾는 소녀의 모습을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꾸준히 겨울 앨범을 발매해온 엑스

는 오는 21일 2017 겨울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다.

NCT 드림은 SM의 음원 플랫폼인 'SM 스테이션'을 통해 오는 15일 크리스마스 캐럴 '조이'를 공개한다.

레이블 단위로 겨울 시즌송을 발표하기도 한다.

스타십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일 윈터 프로젝트 '스타십 플래닛'을 통해 윈터 시즌송 '크리스마스 데이'를 공개했다.

스타십 플래닛에는 케이윌 소유, 정기고, 매드클라운, 보이프렌드, 유승우, 브러더스,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샴건, 마인드유(구 어쿠르브), 듀에토, 정세운, 이광현 등이 참여했다.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 제이는 개그맨 김영철과 함께 부른 듀엣곡 '크리스마스 별겨 없어'를 지난 9일 공개하기도 했다.

가요계 관계자는 "벚꽃엔딩에서 보듯 계절과 음악의 상관관계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음원차트도 일상인 날씨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톱 가수들이 겨울 시즌송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이 몰려 있는데, 한해 활발히 활동을 했어도 후반기에 부각된 팀이 상을 받는데 도드라지는 점이 있다. 겨울 시즌송은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는 것에도 한몫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골키퍼 유망주 송범근, 전북 현대 유니폼 입는다

윤지혁·정호영·나성은과 함께 입단 계약 체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골문을 지킨 송범근(20·고려대)이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는다.

전북은 12일 송범근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범근은 196cm의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이 좋고 순발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차세대 국가대표 유망주다.

많은 국제대회에서 침착한 경기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즉시 전력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 골키퍼에서 약점을 보인 전북은 송범근의 합류로 고민을 덜었다.

송범근은 "프로의 첫 무대를 전북이라는 명문팀에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며 "신인들의 무덤이라는 전북에서 이재성(MF), 김민재 선

수처럼 반드시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 송범근과 함께 윤지혁(19·승실대·DF), 정호영(20·전주대·FW), 나성은(21·수원대·FW)도 데려왔다.

중앙수비수인 윤지혁은 승실대 입학 첫해 주전 자리를 꿰차고 춘계연맹전 우승을 안겼다. '제2의 김민재'로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정호영은 개인기와 슈팅이 좋고, 전북 유스 출신의 나성은은 빠른 스피드가 장점이다.

최강희 감독은 "이번에 입단하는 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며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올려 내년 시



즌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여자농구 '난투극' 어천와·해리슨, 1게임 출장정지+반칙금

경기 중 난투극을 벌인 여자프로농구 두 외국인 선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WKBL은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난투극 어천와(우리은행)와 이시벨 해리슨(KEB하나은행)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해 1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반칙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골밑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뒤엎겨 넘어졌다.

선을 넘어서서 과격한 동작으로 코트

를 어지럽혔다.

양팀 감독과 선수들이 코트로 나와 두 선수를 떼어내며 더 큰 불상사는 막았지만 어천와는 소리를 지르며 당장이라도 해리슨을 향해 돌진할 것처럼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해리슨도 크게 타르지 않았다.

심판진은 두 선수 모두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WKBL 재정위원회는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르츠 맨 라이크 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반

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어천와와 해리슨에게 각각 반칙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1경기를 뒤흔 수 없게 했다.

이어 해당 사건 발생 시점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다.

심판 3명에게는 사고예방과 미흡한 대처 등의 이유로 반칙금 10만원씩을 부과했다.

/뉴시스

'스타워즈' 강철비 제치고 예매 1위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감독 라이언 존슨)가 예매 순위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는 이날 오전 9

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 4만7681명(예매 점유율 31.8%)으로 예매 순위 정상상을 달리고 있다.

오는 14일 개봉하는 이 작품은 같은 날 관객을 만나는 정우성과 박도원 주연, '변호인' 양우석 감독이 연출한

'강철비'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강철비'는 예매 관객수 3만4600명(예매 점유율 20.3%)으로 '스타워즈:라스트 제다이'에 이어 예매 순위 2위를 유지 중이다.

이 영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8번째 작품이다.

전작 '깨어난 포스의 속편' 격으로 내면에 잠재된 포스를 알게 된 '레이'(데이지 리틀리)와 퍼스트 오더의 실세 '카일로 렌'(에덤 드라이버)의 대립을 그린다. 데이지 리틀리·에덤 드라이버를 비롯해 마크 해밀·故 캐리 피셔·오스카 아이삭 등이 출연한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박스오피스 순위는 1위 '썬'(5만18028명, 누적 378만명), 2위 '기억의 밤'(4만7979명, 115만명), 3위 '베리와 마녀의 꽃'(2만15074명, 33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